

# 소비자 휘어잡을 'K-신발 브랜드' 왜 없나

박재역의 맛있는 우리말

## 타산지석과 표상

'담이 걸리다'해야 할 것을 '담에 걸렸 다'라고 하면 자칫 엄청난 오해를 부를 수 있다. '담에 걸렸다고 하면 '매독(梅毒)에 걸렸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말이라는 것은 '아 해 다리고 어 해 다르다.'

'일본은 반면교사(反面教師)가 아니라 타산지석(他山之石)이다.'

한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들 언론에서 받아 기사화하면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표현이 공개된 것이다. 타산지석은 '다른 산의 나뭇 돌이라도 자기 산의 옥돌을 가는 데 쓸 수 있다'라는 뜻이고, 반면교사는 '부정적인 면에서 얻는 깨달음이나 가르침을 주는 대상을 이르는 말'이다. 반면교사와 타산지석은 사실 같은 의미이다.

국내 정보기술(IT) 기업이 중국 경쟁사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서는 부활하는 일본 IT기업의 과감한 전략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 기사 내용이었다. 그렇다면 '일본은 반면교사가 아니라 타산지석이다'가 아니라 '일본은 타산지석이 아니라 본보기이다' 또는 '일본은 반면교사가 아니라 표상이다' 등으로 표현해야 옳았을 것이다.

한국어문교열연구회 원장



스카이 View

김학형  
경제산업부장

원래 한정판(限定版)과 희귀본(稀貴本)은 한자에서 보듯 책이나 출판물·음반 등에 붙는 표현이었다. 존재 이유는 주로 수요가 적거나 자금이 부족해 적게 찍어서였다. 하지만 이제는 대량 생산 속 희소가치를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어떤 상품에 붙여도 어색하지 않은 표현이 됐다. 중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적잖은 상품이 진짜 중고품이 아닌 한정판 또는 희귀본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특히 일부 신발은 처음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값에 거래된다. 나이키와 아디다스 등의 브랜드는 새로 나온 신발을 더 이상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에만 전시하지 않는다. 온라인 추첨을 통해 일부 소비자에게만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거나 무료로 증정한다. 한정된 물량 탓에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기존보다 2-3배 높은 가격에 거래되게 만들어, 스스로 희귀품이 되게 함으로써 제품과 브랜드 가치를 함께 높이는 전략이다.

한정판 거래 플랫폼 '크림(KREAM)'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많이 거래된 한정판 신발은 '올백포스(나이키 에어포스1 07 로우 화이트)'로 집계됐다. 남성 부문에서 거래량 1위, 여성 부문에서 거래량 2위를 차지했다. 거래량은 2021년 대비 500% 이상 늘었다. 범고래를 연상케 하는 검은색 때문에 일명 '범고래'라 불리는 '나이키 덩크 로우 블랙'은 남성 부문 거래량 2위, 여성 부문 거래량 1위를 차지했다.



나이키와 아디다스 등의 브랜드는 새로 나온 신발을 더 이상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에만 전시하지 않는다. 온라인 추첨을 통해 일부 소비자에게만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거나 무료로 증정한다. 한정된 물량 탓에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기존보다 2-3배 높은 가격에 거래되게 만들어 스스로 희귀품이 되게 함으로써 제품과 브랜드 가치를 함께 높이는 전략이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명품 시장 규모는 141억 달러(16조 원)로 세계 7위를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명품 의류·신발 시장이 4조8100억 원 규모로 가장 컸다.

한국에서 신발 매출로만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브랜드는 나이키뿐이다. 나이키코리아의 최근 2년간 매출액은 1조4522억 원(2020년 6월~2021년 5월)·1조6750억 원(2021년 6월~2022년 5월)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신발 품목이 1조 원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이키코리아는 유한회사라서 실적을 비공개해 왔으나, 개정된 '외부감사법'(新외감법)이 시행되면서 2021년부터 실적을 공개하고 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주식이나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으며, 1인 이상의 책임 사원이 출자한 금액만큼 책임을 지는 기업이다. 단,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 이사회 및 감사가 없고 경영 자율성이 폭넓게 인정되므로 대표자 또는 임원의 단독 결정이나 종신 임기 등이 가능

하다. 비교적 폐쇄적인 성격 탓에 원래 취지대로라면 유한회사는 소규모 신생 기업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나이키를 비롯해 샤넬·루이비통·구글·애플·넷플릭스 등 손꼽히는 다국적기업의 한국 지사가 모두 유한회사다. 대부분 2010년을 전후로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했다. 따라서 그동안 실적이 비공개였고 이들 지사가 본사에 보내는 배당금·브랜드 이용료(로열티)나 사회공헌활동 등을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었다.

신(新)외감법에 따라 공개된 실적은 예상보다 처참하다. 2020년 루이비통코리아는 1조 원대 매출에도 기부금이 0원이었고, 에르메스코리아는 순이익의 90%에 가까운 860억 원을 본사에 배당했다. 2714억 원의 매출을 거둔 프라다코리아는 재무제표에 기부금 항목이 아예 없었고, 이억임여금으로 929억 원을 적립했다. 제품 제조 공정이 국내 없는 경우도 허다하므로 영업·판매 등의 일자리 정도를 제외하면 한국에 이바지하는 게 없는 셈이다.

그나마 나이키가 최근 2년간 5억3000만 원·6억9800만 원 정도를 기부했고, 샤넬코리아가 2020년 매출 9296억 원에, 6억 원을 기부했다. 구찌코리아·아디다스 코리아 등 '유한책임회사'는 이마저도 회피했다. 신외감법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는 감사보고서 공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범방조차 회피할 방법을 찾는 것이 시장경제의 인지상정일 수 있다. 또 이들 다국적기업의 현지 법인이 대부분 유한회사라서 유독 한국에 인색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그렇다고 해도 세계 어디에서든 수조수천억 원을 벌면서 현지에 거의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적어도 우리 기업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신발과 신발 브랜드라면 국민의 눈치를 볼 텐데 말이다. 유한기업을 양지로 끌어낸 점은 인정해야겠지만, '폼수'를 제대로 막지 못하는 신외감법에도 문제가 없지 않다.

hnhkim@skyedaily.com

# 하이브·카카오 '쩐의 전쟁'에 개미 참전은 위험



데일리 Talk

김나운  
경제산업부 기자

에스엠엔터테인먼트(SM)의 경영권 확보를 두고 하이브와 카카오의 '쩐의 전쟁'이 접미가적이다. 최근 하이브가 SM 주식 공개매수를 통한 경영권 확보에 실패했고, 카카오가 같은 시도에 나섰지만 이 역시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들의 경영권 분쟁이 심화할수록 SM의 주가가 연일 상승하는 바람에 개인 소액투자자(개미)들의 묻지마 투자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이브는 이달 1일까지 12만 원에 진행한 공개매수에서는 SM 지분 0.98%밖에 매입하지 못했다. 앞

서 하이브는 주당 12만 원에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SM 지분 14.8%를 취득했다. 이로써 하이브는 이전 총괄의 지분과 공개매수 지분을 합쳐 SM 지분 15.78%를 확보하게 됐다.

법원은 SM이 카카오를 대상으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정했다. 이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다. 이에 카카오는 7일 공시에서 이달 26일까지 최대 1조2500억 원을 투입해 SM 주식 833만3641주를 주당 15만 원에 공개매수한다고 밝혔다. 공개매수에 성공하면 총 39.9%의 지분으로 SM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문제는 SM 경영권 분쟁이 주식시장을 과열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하이브가 SM 주식 공개매수에 실패한 원인으로 SM의 주가가 12만 원을 상회한 점이 꼽힌다. 카카오가 7일 SM 주식을 주당 15만 원에 공개매수한다는 공시가 뜨자 전날 13만100원인 주가가

다음 날 14만9700원까지 올랐고, 8일 장중 16만 원을 돌파했다. 주가상승의 흐름이 과열된 가운데 대차잔고 역시 상장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SM 대차잔고는 7일 기준 7660억 원으로 전날인 6일 5525억 원 대비 1000억 원 가까이 급증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 통계상 잔고가 집계된 2010년 이래 역대 최대치다. 주가가 8만 원대 이던 2월 초 대차잔고가 1628억 원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한 달 동안 5배 가까이 급증한 셈이다.

대차잔고는 대차거래로 빌린 주식의 잔고를 말한다. 대차거래란 기관이 주식을 빌리는 거래로, 늘어난 만큼 주식 차입 수요가 늘었다는 의미다. 특히 대차를 통한 차입 주식이 공매도도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관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 대차거래로 주식을 빌려야 한다는 점에서 공매도가 쏟아질 위험도 커지게 된다.

여기에 주가가 급격하게 오르자 단기 차익을 기대

하는 신용투자자 거래도 몰렸다. SM의 신용투자 잔고율은 지난달 28일 105만4001주에서 전날 119만4614주로 13.34% 올랐다. SM의 신용거래 잔고율은 5.01%로, 코스닥 평균 신용거래 잔고율인 2.31%의 두 배를 넘는다. 개인 투자자가 빚을 내서 투자에 나서서 동안 공매도 거래량도 늘었다. 전날 기준으로 SM의 공매도량은 10만3112주였고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은 4.02%였다.

경영권 분쟁 탓에 단기간에 급증한 종목에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은 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신용투자 거래 비율이 높은 종목은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반대매매 추세가 급격하게 일어 주가 하락 속도를 가속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용거래가 몰리는 종목은 공매도 세력의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개인투자자들은 지금 당장 시장에 뛰어 들기보다 당분간 관망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nykim@skyedaily.com

SkyeDaily  
발행·편집인 조정진 주필 황중택  
인쇄인 임재형 편집기획국장 박선옥  
경제산업국장 최환금 광고국장 양훈식

(주)스카이데일리  
창간일자 2011년 9월 2일  
등록일자 2011년 7월 18일  
등록번호 서울가01703(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가150131(일간신문)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41 세신빌딩 9층  
TEL 02-522-6595-6 Fax 02-522-6597  
홈페이지 www.skyedaily.com  
구독료 월 15,000원/연 180,000원

**농협경제지주**

**가까이 하면 더욱 안전한 우리축산물**

농협안심한우  
농협안심한돈  
농협안심계란  
농협안심축산

우리나라 축산물의 경쟁력을 키워가는 농협안심축산. 우리는 전국 농축협과 함께 합니다.